

특검은 강공·정책엔 유연성... 이재명, 대여 강온 전략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민생지원금 차등지원 방안 수용 입장 양보 하더라도 성과 중점... 채상병·김건희 특검은 속전속결 방침

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내 현안은 물론 원내 전략 등에서도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 대표는 대여공세 측면에서는 강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여당안도 수용하겠다는 정책적 유연성을 보이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우선 대여공세의 경우 이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특검(특별검사)법 드라이브'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해 정국교외 내에 이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할 특검법까지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여권을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이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이 대표의 민생현안 접근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와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5%의 절충안도 수용이 가능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를 두고도 예초 1인당 25만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전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특검법 등의 사안에서 보여주는 '강공 모드'와는 결이 다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중도·보수층 공략 플랜을 가동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민생문제의 경우 여권과 극한 대치를 하기보다는, 다소 양보를 하더라도 성과물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게 낫다는 이 대표의 '실용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현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와 "우리 것만 주장하다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더라도 반걸음이라도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총선에서 거야(巨野)를 만들어 준 민심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 역시 이런 기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거야의 수장으로서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만큼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권 정당, 대안 정당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줘야 하므로 성과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대 국회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이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다른 핵심 관계자 역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의 두 가지 큰 요구는 국정기조 전환과 민생 살리기"라며 "양쪽 모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wangju@kwangju.co.kr

문체위 민형배·국토위 정준호...민주, 상임위 배정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내정...법사위 박군택

광주·전남 22대 국회의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윤곽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반기 상임위원회 1차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광주 8명·전남 10명은 17개 상임위 중 11곳에 고루 배치됐다. 광주 동남갑 정진욱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서구갑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구를 양부남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북구갑 정준호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북구를 전진숙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광산갑 박군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유일 재선인 광산을 민형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배정됐다.

애초 민형배 의원은 국토위를, 정준호 의원은 정무위를 희망했으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현안과 직결된 상임위 희망자가 전무하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상임위를 조정했다.

전남은 농어촌 산업 비중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자위에 각각 2명씩을 배치했다. 농해수위에는 재선인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조선인 고홍·보성·장흥·강진 문금주 의원이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재선인 목포 김원이 의원이 야당 간사를 맡고 조선인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권항열 의원도 함께하게 됐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립대 유치 현안 등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수를 조계원 의원은 문체위에 배치됐다.

5선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 4선인 담양·함평·영광·장성 이계호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3선인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의원은 이번 1차 배정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속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배정안을 토대로 여당인 국민의힘 과 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22대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5일 선출되며 국회법에 따라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163일만에...송영길 보석 허가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30일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9일 구속된 지 163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을 내라고 명령했다.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과 관련한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공판 출석의 의무를 지며, 출국 내지 3일 이상의 여행을 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아야 한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65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당 관계자에 살포하고 외곽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원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2인 체제 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탄핵 사유"

민주당 "방송 3법 통과 뒤 구성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방송 3법 입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절차로 이사진을 구성해야 한다. 지금 이사진을 앞당겨 구성할 이유

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위원 정원 5인 중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만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을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방문진과 교육방송 이사회를 확대·개편하고 이사 추천 경로를 개방하는 내용이 골자다.

고 최고위원은 "준공영방송 YTN을 민영화하는 지분 매각을 승인하는 등의 직무유기에 더해 추후 위법행위가 일어나면 탄핵을 실행해 옮길 수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김문수 "순천대 의대 유치 등 3대 과제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3대 과제의 추진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학생인권법'(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과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 서울시 등 기존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막을 것을 약속했다.

또 '여순사건특별법' 개정도 약속했다. 현행법과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태도로는 여순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다.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 희생자 직권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뉴라이트·극우 인사위주로 구성된 여순사건 진상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체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할 기획단의 자격 조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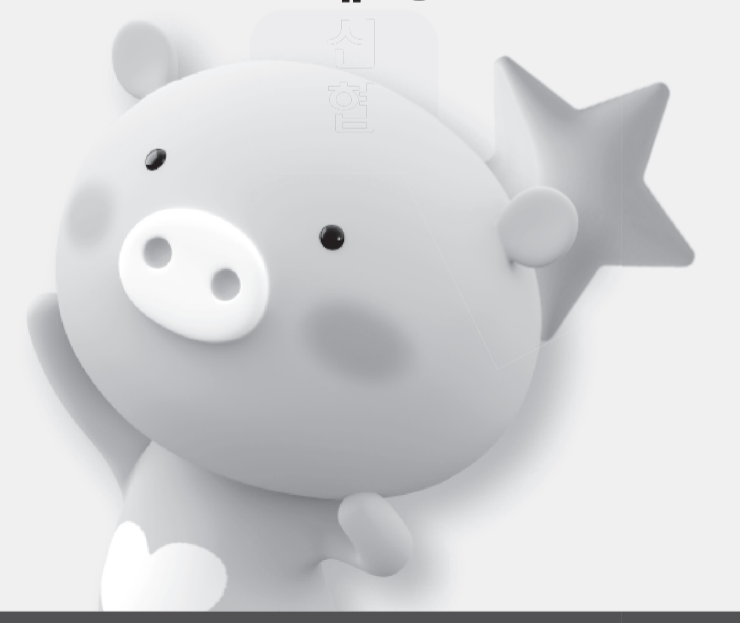
/오광록 기자 kwangju@kwangju.co.kr

광주문화신탁

광주문화신탁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